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FinanceYahoo: 이번 주 금요일 노동 시장 보고서 발표
- Reuters: 8월 미 제조업 활동 약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약해
- WSJ: 이번 주 미 경제 지표들 발표 일정
- CNBC: 미국인들의 해외 항공 여행 수요 강하다

#### [뉴욕시]

- Bloomberg: Airbnb, 뉴욕시 정부에 “단기 숙박 규정 완화해 달라”

#### [미국 생활]

- CNNBusiness: 혼자 식당에서 먹는 미국인 늘고 있는 이유는?

#### [원자재]

- CNBC: 미 원유가 3% 이상 하락... 중국 수요 약화와 OPEC+ 생산 확대로
- WSJ: 원유와 구리 가격 하락... 중국 수요 우려

#### [글로벌 경제]

- WSJ: 중국 제조업 민간 지표 상승
- Bloomberg: 한국, 중국 칩 규제 동참 위해서는 미국의 ‘당근’ 필요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경쟁금지계약 유지... 알아야 할 것들
- Bloomberg: AI에 힘입은 애플... 중요한 테스트가 기다린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FinanceYahoo: Crucial jobs report kicks off a new month: What to know this week

#### 이번 주 금요일 노동 시장 보고서 발표

- 이번 주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7월의 일자리 보고서가 과장됐는지, 아니면 일자리의 광범위한 감소 추세의 조기 경보인지 파악하게 된다.
- 또한 일자리 채용 공고와 민간 기업의 임금 상승률도 발표되는데,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의 활동 수준도 발표된다.

- 한편 S&P 500은 8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8월에는 2.3% 상승했다. 다우존스는 8월에 1.8% 상승해 사상 최고치 지수를 보였으며 나스닥은 0.6% 상승했다.

## FinanceYahoo 기사

### Reuters: US manufacturing edges up in August from 8-month low, but trend remains weak

#### 8월 미 제조업 활동 약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약해

- 미 제조업 활동이 7월에 가장 약세를 보이다가, 8월에 8개월만에 상승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활동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 ISM의 제조 분야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지난 7개월 이래 가장 낮았던 7월 46.8에서 8월 47.2로 상승했다.
- 지수가 50 아래면 제조 활동이 위축을 나타낸다. 제조업은 미 경제의 10.3%를 점유하고 있다.
- PMI는 지난 5개월 연속 50 미만을 나타냈지만, ISM 기관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 확장을 시사할 수 있는 42.5%를 넘어선 상태다. 제조업 생산과 기업의 비즈니스 장비 지출과 관련된 지수에 따르면 제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Reuters 기사

### WSJ: Jobs Report, PMI Surveys: Key Economic News Points to Watch This Week

#### 이번주 미 경제 지표들 발표 일정

- 화: 미국 제조부분의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 수: 일자리 공고와 이직률 발표
- 목: ADP 일자리 보고서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미 서비스 분야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 금: 비농업 일자리 발표
- 한편 ING의 이코노미스트 James Kinightley에 따르면 일자리가 10만개 이하로 추가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연준은 금리를 0.5%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WSJ 기사

## CNBC: American demand for international trips drives 'travel momentum' and overall spending

### 미국인들의 해외 항공 여행 수요 강하다

- 뱅크오브아메리카 조사에 따르면 국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강해 미국인들의 여행 지출이 팬데믹 수준보다 계속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여행 지출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았지만 지난 2019년보다 훨씬 높는데, 뱅크오브아메리카 크레딧 및 데빗카드의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구당 10.6% 상승했다.
- 미국인 응답자의 17%는 6월 설문 답변에서 향후 6개월간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보다 14% 이상 상승한 수치다.

CNBC 기사

[뉴욕시]

## Bloomberg: Airbnb Urges NYC to Scale Back Short-Term Rental Regulations

### Airbnb, 뉴욕시 정부에 “단기 숙박 규정 완화해 달라”

- Airbnb는 현재 여행자와 숙박 주인에 대한 힘든 여파를 인용하면서, 거의 1년 전에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기 숙박 등록이 불법이라고 한 뉴욕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뉴욕시 관련 법은 단기 숙소 등록을 하려면 엄격한 거주 및 빌딩 코드를 준수하고 있다는 뉴욕시의 라이선스를 얻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Airbnb에 따르면 이 같은 법이 주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약속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뉴욕시 임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행객들은 숙박 옵션이 부족한 데다 호텔 비용은 상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어 집주인의 임대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 CNN Business: More people than ever are eating alone at restaurants.

### This is why

### 혼자 식당에서 먹는 미국인 늘고 있는 이유는?

- 식당 예약 플랫폼인 OpenTable에 따르면 5월 31에 마감된 12개월 동안 1인용 파티 예약자가 작년보다 8% 증가했다는 것이다.

- 관련 2천명 대상 설문에서 60%가 작년에 식당에서 혼자 먹었고, 그 중에 68%는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였다.
- 집에서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는 이유나 새로운 식당을 탐색한다는 이유로 혼자 식사하는 것이다. 특히 밀레니엄과 Z세대의 혼밥 현상이 크게 늘어났다.
- 소셜 미디어가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편하게 만들었으며 인구 통계적인 추세가 이 같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 [원자재]

#### **CNBC: U.S. crude oil falls more than 3%, erases 2024 gains as China demand, OPEC output hike loom**

#### **미 원유가 3% 이상 하락... 중국 수요 약화와 OPEC+ 생산 확대로**

- 미 원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OPEC+이 오는 10월에 원유 생산 증가를 여전히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 화요일 미 원유 선물은 3% 이상 하락했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10월 선물이 배럴당 70달러 97센트로 3.48%(2달러 58센트) 하락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1% 하락했다.
- 또 다른 하락 이유로 8월 중국의 제조업이 지난 6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가장 큰 석유 수입국이다.
- 한편 IS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 활동이 지난 8월에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C 기사

#### **WSJ: Oil and Copper Prices Decline on Concerns Over Chinese Demand**

#### **원유와 구리 가격 하락... 중국 수요 우려**

- 중국 원자재 수요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와 구리 가격이 하락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76달러로 2% 이상 하락했다.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구리 가격은 3% 하락했다.
- SEB 수석 상품 분석가 Bjarne Schieldrop은 이 같은 가격 하락이 중국 경제와 중국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 OPEC+가 점차 공급을 늘릴 것이란 기대도 유가를 압박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리비아 석유 생산 중단으로 다른 회원국의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 WSJ: China Caixin Manufacturing PMI Signals Improvement 중국 제조업 민간 지표 상승

- 중국 제조업 민간 지표가 8월 성장세에 들어섰다. Caixin Media Co.와 S&P 글로벌이 월요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Caixin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7월 49.9에서 8월 50.4로 올랐다. 구매자관리지수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 민간 지표 성장은 중국 소규모 제조업체의 회복 신호일 수 있다. Caixin에 따르면 8월 공장생산이 소비재와 중간재 부문 확장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신규 주문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수요가 다시 상승한 반면에 수출 주문은 8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11개월 동안 위축되었던 고용 시장도 8월엔 안정세를 보였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12개월 시장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향후 생산량 전망에 대해선 그렇지 않았다. Caixin Insight Group 수석 이코노미스트 Wang Zhe는 내수 부족 같은 주요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 WSJ 기사

### Bloomberg: South Korea Wants US 'Carrots' for Embracing China Chip Curbs

#### 한국, 중국 칩 규제 동참 위해서는 미국의 '당근' 필요

- 한국이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추가 제한 동참을 위해 미국의 더 많은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정인교 한국 통상부 장관은 국가나 기업이 미국의 정책을 더 쉽게 받아들이려면 일종의 당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블룸버그 뉴스는 지난달 미국이 AI 칩과 장비 판매 제한을 위해 몇 가지 규제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미국의 기술을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외국산 제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외국산 직접 제품'이라는 채찍이 있다.

##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Noncompete agreements aren't going anywhere. What to know if you sign one

### 경쟁금지계약 유지... 알아야 할 것들

- 지난달 텍사스 판사는 이번 주 수요일 발효 예정이었고 전국적으로 연방 정부가 추진했던 경쟁금지계약의 제한 조치를 무효화했다. 기존의 경쟁금지계약은 유효하며, 고용주는 이를 고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경쟁금지계약으로 일하고 있거나 서명을 고려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 일반적인 경쟁금지조항은 일정 기간, 일정 거리 내 고용주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직장을 떠날 때 어떤 제약을 받는지, 대신 어떤 것을 얻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주에서 경쟁금지계약을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에서 제한하는 경우 경쟁금지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제한 여부는 해당 주의 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에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쟁금지계약 제한이 많고, 다른 많은 주에선 제한이 적다.
- 설사 주에서 경쟁금지계약을 제한하지 않아도 반독점법에 따른 구제 수단이 있다. 플로리다 고용법 변호사 Donna Ballman은 “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쟁금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따라 불법이다. 고용주가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쟁 방지 외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기간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직원에게 방어 수단이 있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 Bloomberg: Apple Rally Fueled by AI Promises Approaches a Crucial Test

### AI에 힘입은 애플... 중요한 테스트가 기다린다

- 곧 출시될 인공지능 아이폰에 대한 기대로 애플 주가가 상승했다. 애플 주가는 4월 저점 대비 39% 상승해 시가 총액에 9000억 달러를 추가했다. AI 전략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다.
- 아이폰은 애플의 지난 분기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중 10% 미만만이 AI 기능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할 잠재적 고객이 매우 많을 것을 예상된다.
- 17번의 아이폰 출시 중 12번 출시일 애플 주가 하락이 있었다. Cantor Fitzgerald 수석 주식 및 거시 전략가 Eric Johnston은 “새 아이폰 출시에 관련해 매도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출과 수익 증가에 따라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모멘텀이 있다면 비싼 종목은 계속 비쌀 수 있다. 애플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증시 강세에 미국인 금융자산서 주식비중 42%...1952년 이후  
최고****연금부자도 늘어...美 주식형펀드에 8주 연속 자금 순유입  
11월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AI 랠리 주춤' 신증론도**

최근 몇 년간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인들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의 비중이 적어도 195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투자은행 JP모건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2분기 기준 42.2%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수치는 1982년 2분기 9.44%로 저점을 찍은 뒤 닷컴버블 당시인 2000년 1분기 38.38%까지 올라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 2009년 1분기에는 18.86%로 내려온 바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